美 성소수자, 불교 개종 증가 "차별 없어 좋다"

애틀랜타 내 불교센터 2곳,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발

보수성향이 짙고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미국 남부서 불교로 개종하는 성소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불자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지역 불교센터도 많아지는 추세다.

미국 격주 신문 'GEORGIAVOICE'는 1월 1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북서부 애틀랜타 시내 불교센터서 활동이 활발한 성소수자 커뮤니티 2곳을 소개하고, 성소수자들이 불교에 의지하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먼저 애틀랜타 교외 주택도시 디케이터에 위치한 '애틀랜타 샴발라 불교센터(이하 샴발라 센터)'는 매월 1회 성소수자 모임을 개최하고 △명상수련 △다르마 회의 △그룹상담 등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에드윈 애셔트 샴발라센터 성소수자 대표는 샴발라 센터 내 성소수자 모임을 결성한 이유로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그는 "단지 성소수자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곳에 모인 성소수자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한다"며 "이에 5년 전부터 본격적인 모임을 주최하고 그룹상담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애셔트 대표에 따르면 모임은 유년기 성정체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경험을 한 이들을 적극 수용하고 명상치료에 돌입해 유명세를 얻었다. 특히 엄격한 남부 침례교도 가정서 자란 애셔트 대표 자신이 유년시절 아픔의 치료 방법으로 불교를 선택, 상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내 어린 시절은 기독교 교리와 성정체성을 합치시키려 노력하는 혹독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성경 구절을 엄격한 사실로 믿으면서 자랐지만 결국 성경 구절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었지요. 반면 불교 경전 구절은 구구절절 이해가 쉽고 합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가르침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내 성소수자 불자 늘어
대부분 기독교 배척 경험有
'차별 않는 불교'서 희망 발견
지역 불교센터 활동 적극 동참

또한 샴발라 센터서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샐리 래릭 부위원장은 불교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단 점이 많은 성소수자들을 끌어 모으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불교커뮤니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이곳 센터엔 많은 성소수자들이 방문하며 이는 절대 부정적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서 성정체성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고가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방출하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수행법은 주위 사람들과 관계도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스스로를 대하는 생각도 관대하게 해줍니다."

래릭과 애셔트는 샴발라 센터를 다니는 모두가 꼭 불자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애셔트는 "우리 센터는 인류애에 관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설파한다"며 "태어난 모습 그대로 불성을 지닌 존재란 사실을 알리고 보편적 선을 펼치기 위해 계속 모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미국 남부서 불교로 개종하는 성소수자들이 늘어나고, 불자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지역 불교센터도 많아지는 추세다. 사진출처=lovelaughveggies.com

보편적 인류애와 불성을 설파하는 또 하나의 성소수자 모임은 '창가학회불교센터'서 열린다. 애틀랜타 시내 17번가에 위치한 창가학회불교센터는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성소수자 모임을 통해 △불교 교리 공부 △지역사회 화합 회의 △염불 · 명상 수련 등 제공한다.

센터 이용자 로키 캐럴은 기독교에 대한 흥미를 잃은 후 귀의할 종교가 필요한 상황서 지난해 4월 창가학회불교센터를 발견하고 매주 집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캐럴 씨가 내세운 가장 큰 불교 교리의 매력은 '개방성'이다.

"센터 멤버들과 모여 공부하는 시간에 게이바에서 일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멋진데요!' 하는 겁니다. 눈 깜짝 하지 않으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고 말해줘 감동했습니다."

캐럴 씨는 "감리교도 가정서 자라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남아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불자로 살면서 불교 교리가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믿고 있다.

"불교는 제게 상황서 한 걸음 물러나 논리 · 이성적으로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가르침을 줬습니다. 다른 분야에 얽매여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니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쉬워졌습니다. 불교센터는 내 인생 최초로 남들로부터 버림받았다거나 외로운 기분이 들지 않게 해준 공간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수련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불교학자가 된 신부의 실화 영화 '사일런스'

마틴 스콜세지 감독 신작, 2월 22일 국내 대개봉



영화 '사일런스' 공식 포스터.

선불교로 개종한 어느 신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사일런스'가 곧 한국서 개봉한다.

세계적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신작 '사일런스'는 17세기 포르투칼 출신 가톨릭 예수회 신부 크리스토바오 페레이라 선교사 이야기를 담은 대서사 드라마다. 이 작품은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됐던 거장 엔도 슈사쿠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소설을 읽은 후 영화화를 구상했다. 1980년대 후반 각색을 시작해 15년 만에 시나리오를 완성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앤드류 가필드, 리암 니슨, 아담 드라이버가 열연을 펼쳐 더욱 화제다.

실종된 스승을 찾고 복음을 전파하려 일본으로 떠난 크리스토바오 페레이라는 천주교 박해가 한창이던 일본서 처참한 광경을 목도한 후 충격에 빠진다. 온갖 핍박 속에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신은 고통의 순간에 어디에 계시는가' 란 고민에 빠진다.

이후 크리스토바오 페레이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나타낸다. 1636년 책 〈기만의 폭로〉를 통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가톨릭교회를 강력하게 비판, 선불교로 개종한 뒤 불교학자가 된다. 페레이라 신부의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가톨릭 역사상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으로 구전된다.

한편 사일런스는 2016년 전미비평가협회 각색상을 수상하고 2017년 아카데미 주요 부문 유력후보로 거론될만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2월 22일 국내 개봉한다.

박아름 기자

태국 '파계승 블랙리스트' 작성 초읽기

1월 18일 분세드 키띠타랑쿤 상가 최고위원장 발표

태국 당국이 범법을 저지른 파계승들을 단속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계획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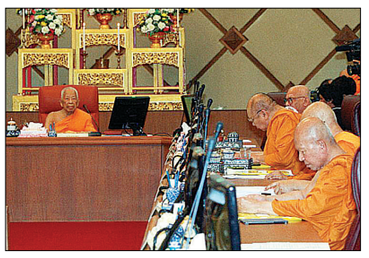
태국 언론 'CHIANGRAI TIMES'는 1월 18일(현지시간) "분세드 키띠타랑쿤 상가 최고위원장이 태국 불교 사무소(The National Office of Buddhism)가 파계승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계획임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CHIANGRAI TIMES'에 따르면 분세드 최고위원장은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 난 승려가 교묘히 승복을 입고 돌아다니며 똑같은 비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겠다"며 "파계승 정보를 블랙리스트로 작성하고,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국 불교 사무소는 각 승려에 대한 정보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 경찰이 파계승을 적발하는 데 최고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구족계 수지를 앞둔 승려는 반드시 중앙 데이터베이스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법안을 제정, 중앙 및 지방 불교사무소가 정식 승려를 임명하는 단계부터 파계승을 철저히 단속한단 의지를 내세웠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파계승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해외 파계승 단속 문제도 제기하는 등 보완책을 제안했다.


분세드 키띠타랑쿤 상가 최고위원장이 태국 불교 사무소(The National Office of Buddhism)가 파계승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출처=CHIANGRAI TIMES

프리챠 페름파라싯 불교학 겸임교수는 "현재 태국엔 29만 명이 넘는 스님과 60명의 사미승, 39,883개 사찰이 있다. 파계승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범죄를 저지른 승려들을 관리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다만 해외서 파계된 승려들도 이 리스트에 올라야 더욱 완벽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 승가법에 승려는 △성관계 문제 △절도 △살인 △미신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승려직을 박탈당한다고 명시됐다.

이승희 기자

"화장으로 행복 전하고 싶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일본 스님 '눈길'

스님들은 화려한 삶을 살기보다는 금욕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도쿄 출신의 코도 니시무라 스님(26)은 성직자로서,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화려하면서도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니시무라 스님은 자신이 해준 화장으로 상대방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보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길을 걷기로 했다.

그의 고객 명단에는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2014년 우승자 포함) 참가자들과 수많은 패션쇼 모델들이 포함되어 있다.

니시무라 스님은 "스님이 관심을 끌기 위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나의 스승은 사람들에게 불교적 메시지만 전달하는데 도움만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조언하셨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스님은 불교 수행 외에도 일본에서 유명한 동성애 커뮤니티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트렌스젠더 모델들의 사진 촬영 후 무료로 화장을 다시 고쳐주거나, 화장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들을 위해 무료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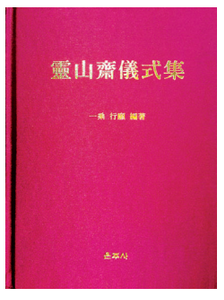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도 활동 중인 니시무라 스님(사진 오른쪽). 사진출처=코도 니시무라 인스타그램

니시무라 스님은 "'Out in Japan' 사진 촬영에 참여했을 때 많은 트렌스젠더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이 화장에 문외한이었고, 나는 그들을 돕고 싶었다"며 "불교 승려로서 나는 모두가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장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행복하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게 된다"며 "그래서 불교와 화장은 아주 연관이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보형 객원기자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 담 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香 DONGUIBOHYANG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 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靈山齋儀式集 영산재의식집
일승 행원 편저 | 국배판 | 446쪽 | 40,000원
영산재 각 의식마다 소리의 길이와 높낮이 등을 그린 채보를 수록하여, 범패를 배우는 초보자들이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영산재는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던 모습을 재현한 것이라는 설과, 위나라 조식이 천태산에 오르자 범천에서 오묘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맞춰 고기떼가 춤을 추자 그 소리를 모방해서 범패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영산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한국 불교의 귀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예술이자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범패는 구전으로 전승되는 관계로 한 구절을 익히려고 해도 그 소리를 수십 수백 번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게다가 전승자마다 소리가 조금씩 달라서 범패를 배우기는 매우 어렵다.
이 책은 실제로 저자가 범패를 배우면서 소리를 잊지 않고 익히고 공부하기 위해 한 구절 한 구절 일일이 채보한 것들을 모아 다시 편집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범패를 배우는 이들이 좀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련, 대령, 관욕, 조전점안, 신중작법, 괘불이운, 영산작법(상단권공), 식당작법, 운수상단권공, 중단권공, 신중퇴공, 관음시식/전시식, 봉송 및 소대의식까지 의식 내용과 그에 따른 채보를 수록하여 범패 전승의 현대화를 꾀하였다.

靈山齋儀式集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010-9726-0626 (저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